



어두움은 곧 지나가고 여명은 멀지않다. 밍후이왕 2001년 7월 20일 발간문에서 이렇게 표시했다. “정(正)과 사(邪)의 대전이후 정과 사는 공존하지 않을 것이며 세계는 곧 ‘진선인(真善忍)’에 동화되어 가장 아름다움으로 회귀한다.” 파룬궁이 대표한 것은 정의의 힘으로서 그의 바른힘은 해내외 연분있는 사람들을 수련속으로 들어오게 했다. 반박해중 그의 바른힘은 더욱 견증되고 승화했다. 멀지않아 사악이 사라지고 중인이 선을 향하는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되면 파룬궁은 사람마다 동경하는 광명 대도가 되며 ‘진선인(真善忍)’은 행운스럽게 겁난을 넘긴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된다.

-- 출처: “[7.20 평론] 23년 순금을 견증하다”

미국 뉴욕에서 23년 박해에 항의하는 파룬궁 평화 대행진 열다

[밍후이왕] 7월 10일,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파룬궁수련자 1천여 명이 모여 23년간의 박해에 항의하고 약 4억 중국인들의 중국공산당(중공) 조직 탈퇴를 기념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이 차이나타운에서 대행진을 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었다. 현지 중국인들은 수련자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다. 한 중국인은 중국에서는 이러한 대행진을 볼 수 없다며, 만약 사람들이 중국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자유롭게 수련할 수 있었다면 현재 중국에는 수억 명의 수련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3년간의 박해를 알리기 위한 끈질긴 노력 끝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파룬궁을 지지하고 있다. 사람들은 수련자들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수련에 관해 배웠다.

한 중년 남성이 수련자들을 멈춰 세우고 “오늘 왜 대행진을 하나요?”라고 물었다. 수련자는

중국에서 박해가 시작된 지 올해 23년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단지 받고 큰 소리로 말했다. “저도 다 압니다. 중국은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요. 중국은 좋지만 중공은 나쁩니다.”

글로벌 중국공산당 탈당센터의 이롱 대표도 대행진에 참석했다. 맨해튼 차이나타운에는 나이 많은 중국인 이민자들이 많은데 그들 중 일부는 중공영사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산정권의 거짓말에 현혹됐다고 이롱 대표는 지적했다. 따라서 그들에게 파룬따파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진선인(真善忍) 원칙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그녀는 말했다. 이롱 대표는 지금까지 약 4억 명의 중국인이 공산당을 탈당했다며, 이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고 세계 평



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파룬궁은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많은 중국인이 거리 양쪽에서 대행진을 구경했다. 어떤 사람은 수련자들이 준 전단지에서 파룬궁 정보를 읽었다. 관람객 중 일부는 최근에 미국에 온 중국인 관광객들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중국에서 곧 파룬궁을 자유롭게 수련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중국 푸젠성에서 이민 온 천씨는 6개월 전에 미국에 왔고 대행진 경로 옆 (2면에 계속)

(1 면의 계속) 거리에 산다. 그는 파룬궁수련자들을 그렇게 많이 본 것은 처음이었기에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영상을 찍었다. 그가 말했다. “미국에서 누리는 자유는 놀랍군요. 대행진 동안 수련자들을 보호하는 경찰관도 있네요.” 천 씨는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대행진은 중국에서는 볼 수 없어요.”

툼이라는 젊은 남성은 모트가에 서서 열심히 대행진을 지켜봤다. 그는 맨해튼 8번가와 퀸스의 플래싱에서도 비슷한 대행진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차이나타운에 오신 파룬궁을 환영합니다. 사실 이 대행진은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에게 진선인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친척 방문으로 미국에 온 류 씨

는 대행진을 본 후 감격에 차 말했다. “이 사회는 사람들이 신앙 자유를 누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져야 할 사회환경입니다.”

“진선인은 전 세계가 필요한 가치입니다. 만약 모두 이러한 미덕을 따른다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이런 원칙을 따르기를 열망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개인적인 이익 앞에서 포기하기에 해내지 못합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이것을 수련이라고 부릅니다. 확고한 신념과 끈기를 가진 사람만이 이 원칙의 궁극적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해낼 수 있습니다.” 류 씨는 20년간의 잔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수련자들이 평화적으로 박해에 맞서고 있는 것은 중국과 이 세상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남성은 말했다. “저는

미국에 30년 이상 살았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 남성은 법선에 있는 아이들을 가리켰다. “저 아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귀엽나요. 여러분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공산당원이었고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 정권은 엉망진창입니다. 싹탕런의 한 프로그램에 나온 ‘잉크로 쓴 거짓말은 피로 쓴 역사를 숨길 수 없다’ 라는 문구가 기억 납니다. 잘 말한 것 같아요. 저는 중공이 얼마나 사악한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대행진을 따라 많은 중국인이 공산당을 탈퇴하기로 했다. 글로벌 중국공산당 탈당센터에 따르면, 관중 208명이 대행진을 본 후 공산당 조직을 탈퇴했다.

타이중시 정계인사들, 촛불집회 참여 해 중공의 파룬궁 박해 중단 촉구

[명후이왕] 타이중시 정계인사들이 지난 7월 10일 원신(文心) 숲 공원에서 열린 파룬궁 촛불집회에 참여해 중국공산당(중공)에 잔혹한 박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타이중(台中)과 윈린(雲林)의 파룬따파 수련자들은 지난 7월 10일, 1999년 시작된 중공의 박해로 목숨 잃은 수련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촛불집회 행사를 개최했다. 행인들은 행사에 전시된 진상 포스터를 본 후 박해 이전에 파룬궁이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알게 됐으며, 행사에 참여한 타이중시 정계인사들은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저녁에는 박해로 사망한 수련자들을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가졌다.

셰즈중(謝志忠) 의원 “자유에는 국경이 없다”

셰즈중 타이중 시의원은 “이렇게 평화적인 단체가 왜 중국에서 잔인하게 탄압받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몇몇 시의원과 다른 공무원들이 행사에서 발언했는데, 지난 23년 동안 중공의 인권 침해를 폭로한 수련자들의 용기와 끈기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는 대만의 자유에 감사하다며, 이는 또한 중공에 의해 박해받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돕기 위해 나서야

이 끔찍한 박해가 곧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따라

쉬즈순 타이중시 문화국 서기가 촛불집회 때 수련자들과 합류했다. 촛불집회 동안 수련자들과 함께 앉아있는데 긍정적인 에너지에 둘러싸인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중공에 ‘아니오’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대만인이 파룬궁 수련자들을 지지하고 박해를 규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양지를 일깨우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 쉬즈순,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대폭로 당년 중앙 TV 기자가 '1400 사례' 중의 한 레를 인터뷰하다

[명후이왕] 1999년, 중공강택민 집단은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발동했다. 역차 정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중공은 선전 기계를 이용해 괴상한 거짓루머까지 터뜨리면서 온힘을 다해 하늘과 땅을 뒤덮듯이 파룬궁에 먹칠했다. 이른바 '1400 사례'는 중공거짓선전의 일부분이다. 당년 한 중앙 TV 기자는 '1400 사례' 중의 한 레를 인터뷰하고 오늘에야 폭로했는데, 알고보니 그중에도 중대한 원한이 있었고 중공은 생명을 멸시하기에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 기자는 증거를 얻고자 왔지만 당사자가 자리를 피하다

'1400 사례' 중에는 한 산둥성 린시(臨沂)시 명인(蒙陰)현 타오쉬(桃墟)진 스자수이잉(石家水營)촌 스정산(石增山)의 둘째딸이 "파룬궁을 수련해 사망된 안례"라는 사례가 있다. 조작된 영상이 2000년 7월 명인 TV와 산둥 TV로 방송된 몇 달 후, 2000년 음력 7월, 중국 중앙 TV 기자는 스정산의 마을에 와서 딸에 관한 이야기를 촬영하기로 했고, 이 프로그램은 "파룬궁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의 증거로 사용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중국 중앙 TV 기자가 인터뷰하러 온다는 통보를 받은 스정산은 자리를 피했다. 마을 간부들은 스정산이 사라지자 당황했다. 스정산을 찾지 못한 기자는 하수 없이 상사에게 그의 인터뷰 거부를 알렸다. 상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찾아라!"라고 지시했다. 마을 간부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동안 기자

는 사흘을 기다렸다. 이들은 동네를 돌며 친구, 가까운 친척, 먼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스정산을 찾지 못했다. 원래 스정산과 아내 마칭란(馬淸蘭)은 1996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했다. 두 사람은 여러가지 질병이 있었지만 수련한지 얼마안돼서 그들부부의 신체는 모두 무병상태로 변하여 행복감을 느꼈다. 그러나 1999년, 중공이 갑자기 파룬궁을 탄압해 스정산의 일가에 커다란 불행과 재난을 안겨주었다. 스정산의 아내는 기자에게 실제 상황을 토로했다.

■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기자는 눈물을 머금고 들었다

"2000년 정월 12일, 타오쉬진파출소 부소장 리창상(李長祥)과 두경찰이 우리집으로 들이닥쳤어요. 두 경찰은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둘째 딸 앞에서 남편의 팔을 비틀고, 목을 조른 채 경찰차에 밀어넣었어요. 둘째딸은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공격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충격으로 쓰러졌는데 3일간 구급했으나 결국 사망했어요. 그러나 명인(蒙陰)현 선전부는 정부 자금을 얻기 위해 파룬궁에 대한 혐의를 날조하는 특수 집단을 조직하고 우리딸이 파룬궁을 연마해 약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사를 맞지 못하게 해서 결국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방송용으로 녹화하기 위해 남편더러 대본을 읽어 현지 텔레비전 방송국에 협조하라고 지시했어요."

"처음에 남편은 양심을 저버리고 거짓말을 하고싶지 않아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진정부에서는 한무리 전담팀을 파견했고 전담팀은 남편의 옷을 벗기고 폭행해 결국 남편은 기절했어요. 남편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은 자주빛으로 멍들었고, 두눈은 피투성이였으며 온몸이성한 곳이 없어 눕지도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구타를 더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는 텔레비전 방송국과 결국 타협할 수 밖에 없었어요. 이때문에 평생의 유감을 남겼지요."

"인민들이 가장 믿는 것이 기자이고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것도 기자인데 진짜로 기자가 왔는데 남편이 왜 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딸에 관한 이야기가 조작된 것이기 때문이죠. 남편은 잔인하게 구타를 당하고 1만 6천 원의 벌금하에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어요. 우리 딸은 경찰의 폭력에 놀라 죽었어요. 우리는 다시는 사람들을 속일 생각이 없으며 파룬궁과 파룬궁 창시자 리사부님께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아요." 마칭란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고 기자도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누님, 나는 누님의 말을 진짜라고 믿습니다." 마칭란은 말했다. "그들은 파룬궁을 타격하기 위해 흑백을 전도하고 우리를 때리고 핍박하여 하기 싫은 일을 하게했는데 천리가 용납못해요. 내가 당신에게 진실을 말했는데 당신은 폭로할 용기가 있겠어요?" 기자는 말했다. "기억했습니다. 제가 공산당의 밥을 먹으니 시기를 기다립시다." 기자는 나중에 스정산을 찾았지만, 보도에 단지 몇 줄의 글만 쓸 수 있었다. 기자는 "스정산은 과수원을 보고 씩씩했다. 풍년이 들어서 기뻐지만, 다시는 둘째 딸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라고 썼다.

스정산부부는 기자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알려줬다. 그는 말했다. "알고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연마하는 이웃 노인들도 모두 파룬궁은 백가지 이로움점이 있을뿐 한가지 해로운 점도 없는 공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울증을 넘는 묘방

[명후이왕] 우울증은 이미 현대생활중에서 보편적인 심리질병으로 됐다. 우울증환자는 정서가 다운돼 있고 흥미가 줄어들면서 때로는 초조해 하며 자포자기하기 쉽다. 일부표현은 정신이 두가지 극단에 이르게 하는데 때로는 정서가 흥분한 상태에 있다가도 바로 저하되기 쉽다. 또 쉽게 초조해 하며 화를 이기지 못해 심할때면 자살경향이 표현된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우울증 발병률은 11% 이고, 3억 4천만 우울증환자가 있는데 치유률은 지극히 낮다. 유행병학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우울증환자 평생발병률은 6.8% 였다. 2021년까지 우리나라 우울증환자는 1억에 달했다. 사회적인 압력이 나날이 증가되면서 우울증환자도 부단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신적인 질병은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간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정서를 안정시킬 뿐이지 효력은 그닥 낙관적이지 못하다.

월남계 마이 여사는 여러해동안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다. 그는 말했



▲ 월남 마이 여사는 여러해 동안 우울증으로 아팠고 파룬궁수련중에서 기적처럼 건강해졌다. 그림은 마이 여사가 집체련공에 참가하고 있는 장면이다.

다. “당시 저는 우울증에 시달려 매일 약을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파룬따파 (法輪大法) 를 수련하면서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더는 자살하고 싶지 않았어요.” 파룬따파는 수련자를 진선인(真、善、忍) 원칙으로 심성수련을 지도해 사람의 심신을 승화시키고,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히는 효력이 있다. 그녀처럼 파룬궁 수련을 통해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은 사례는 많고도 많다. 아래에 몇가지 예를 들겠다.

■ 이혼모는 우울증에서 벗어나다

56 세인 캐시는 회계고문가로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한다. 그는 조용하면서도 온화했고 얼굴에는 늘 담담한 미소를 짓었다. 하지만 그녀가 지난 12년간 고통속에서 발버둥쳐왔음을 그 누가 상상 할 수 있었겠는가? 캐시가 임신한지 5 개월이 됐을때 남편은 그녀를 버리고 또 새로운 행복을 찾아갔다. 캐시는 고독감과 모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졌다. “저는 늘 자살하고 싶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여겼습니다.” 매번 캐시가 우울증이 발작하면 그의 부모님은 그가 칼을 잡거나 혹은 빌딩에서 뛰어내릴까봐 두려워서 끈으로 그를 묶을 수 밖에 없었다. 병세가 엄중할때면 그는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났다가도 또 쓰러지곤 했다.

임신기간에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또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의 아들도 우울증에 시달려 6 세가 돼서야 말을 하기 시작했고 평소에는 말수가 적었다. 캐시의 우울증이 발작할때면 그의 부모님은 아이를 다른방에 데려갔지만 아이는 여전히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캐시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딸에게 말했다. “너는 너 한사람만 괴로운줄 아니? 너의 아들을 봐! 너보다 훨씬 가엽

고 불쌍해.” 캐시는 끝없이 괴로웠다. 그는 심리의사와 의료전문인사들의 상담을 받으면서 금전을 아끼지 않았으나 치료방법을 찾지 못했다. 병만 발작하면 자살하고 싶은 념두만 떠올랐다.

1997년 친구가 그에게 파룬따파 (法輪大法) 를 소개했다. <전법륜 (轉法輪)>은 그의 마음속 많은 의문을 풀어주었다. 점차 그의 우울증은 개선돼 발작하는 차수가 적어졌다. “일주일에 한번으로부터 한달에 한번, 그다음 몇달에 한번씩 발작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발작하던 정경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그날 우울정서가 닥쳐오면서 그는 또 고통과 이성을 잃는 상태에 빠져들어 갔다. 그는 말했다. “예전과 다른 점이라면 부모님은 갑자기 내가 평시에 늘 듣던 사부님의 설법 녹음이 생각나 나에게 틀어 주었는데 저는 즉시 조용해 졌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가르치신 자살은 파룬따파 법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단번에 청성해 저서 이런 생각을 거부하고 배척했으며, 파룬따파를 굳게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도 신기했습니다. 제가 의념을 견정히 한 다음부터 자살하려던 충동에서 철저히 벗어났고, 12년간 저를 괴롭히던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져 더는 발작하지 않았습니다.” 캐시는 말했다. “아들도 저와 함께 파룬 (5면에 계속)

(4 면의 계속) 따파를 수련하면서 얼굴에 웃음을 짓었습니다. 저와 아들의 변화를 보고 부모님도 수련을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집은 웃음이 가득합니다.”

■ **텔레비방송 유명작가: 일심으로 죽기를 원하던데로부터 활력이 넘치다**



▲ 김경일 씨

한국 문화방송회사 (MBC) 유명한 DJ 이자 PD, 예술총검과 방송작가였던 김경일 씨는 한국인이란만 알 만한 간판 프로그램의 작가였다. 그는 텔레비존공작에서 지친 나머지 우울증, 공황장애, 당뇨병, 고혈압, 심장혈관 등 각종 질병을 얻었다. 그는 말했다. “매일 한 20 알 넘는 약을 먹었지만 잠을 잘 수 없어 심지어 신체내에 인공박동기 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때 그는 매일 약으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욕구가 별로 없어 자신을 더 비참해지지 않게 하기위해 세상을 떠나려고 했다. “언젠가부터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죠. ‘100 알을 모이게 되면 단번에 먹자’ 고 생각했죠.” 2019년 겨울, 그가 70 알을 모였을때 광화문 부근에서 산책하면서 우연히 연공을 하고있는 파룬궁수련생을 만났다. 그때로부터 그는 <전법륜 (转法轮)> 을 읽기 시작했다.

2020년 3월의 한차례 건강

검진에서 김경일은 이외로 고혈압, 고지혈, 당뇨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된 한부의 검진보고단을 받았는데 그의 신체상황을 알고있는 간호사마저 믿기 어려워 했다. 김경일은 말했다. “수련후 저의 신체는 전에 없었던 가장 좋은 상태에 도달했고 활력이 넘쳤어요. 더욱이 심령과 정신상의 고통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 **월남 호주 유학생: 수련한지 3개월 만에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추이인 (Trang) 은 월남에서 온 호주 유학생이다. 예전에 그는 장기간 엄중한 우울증과 편두통에 시달려 성격이 거칠어지고, 정서가 극단적이였다. 그는 신체단련으로 노력해 무술, 요가를 하면서 우울증 증세를 줄이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생각과는 반대로 우울증은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날이 심각해만 갔다. 2020년 10월, 추이인은 <전법륜 (转法轮)> 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진선인 (真、善、忍)’에 따라 자신을 수련했다. 얼마안돼 기적은 연이어 발생했다. 추이인을 아주 괴롭히던 우울증이 사라졌고, 머리를 뚫는 듯한 편두통도 사라졌으며, 얼굴의 뾰루지도 전부 사라졌다. 추이인은 말했다. “저의 얼굴의 주름도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내심이 유쾌함에 따라 저의 얼굴도 더욱 밝아졌는데 더는 예전처럼 그렇게 거무칙칙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다. “파룬따파를 수련하기전에 저는 한방면으로는 우울해지면 괴로움을 억눌러야 했고, 다른 한 방면으로는 성격이 거칠어졌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다투기가 일수였습니다. 지금의 저는 평화롭고, 이성적이며, 더욱 객관적으로 사

물을 대하는데 정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심리치료사: 파룬궁은 나의 우울증을 치유했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제인 (Jane YuAnderson) 은 한 심리치료사이다. 그는 말했다. “저 자신은 매일 환자를 위해 치료하지만 자신의 우울증은 치료할 수 없었어요.” 파룬따파를 수련한후에야 그는 새생명을 얻었음을 알았다. 그는 회고하며 말했다.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고 악물로 매일 생활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한지 3개월 만에 나의 우울증이 사라져 더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대단한 기적입니다.” 제인은 말했다. “사업중에서 저는 더욱 청성한 머리로 고객을 도울 수 있었고, 낮에는 정력이 충족했는데 이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더욱 유쾌하고 근심걱정이 없이 또 환자들과 대법의 아름다움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사부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데 대해 영원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로 놓고 말하면 가장 좋은 보답방식은 하나의 좋은 사람이되어 계속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변박해 소식

연길시 위슈잉, 감옥에서 온갖 수모·고문 당해

[명후이왕] 연길시 파룬궁수련자 위슈잉(於秀英)은 심신수련법인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경찰에 납치되어 2021년 7월 23일 11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고 길림여자감옥에 감금되어 각종 고문과 학대를 당하다가 2022년 5월 15일 만기 출소, 친척 집에서 16일간 머물다 5월 30일 귀가했다.

■ 불법적인 노동교양처분

위슈잉은 화룡진 출신으로 1997년 10월 24일 심신수련법인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수련은 '진선인(真·善·忍)'의 법리에 따라 심성이 좋아져 착한 사람이 되었고 질병도 깨끗이 사라져 건강해졌다. 그러나 중공은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그를 불법적으로 납치해 구류처분과 징역형으로 감금했다.

2008년 7월 22일 위슈잉은 경찰에 납치되어 1년 노동교양처분을 받고 장춘 노동교양소에 감금되었다. 그녀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교양복(죄수복) 입기를 거부하여 하루 종일 수갑에 채워 결박당했다.

2018년 8월 13일 오후 위슈잉은 진상 자료를 붙이다가 다시 경찰에 납치되어 룡정구치소에 감금되어 박해당했다.

■ 재차 납치되어 감금

2020년 3월 20일 중공전염병 발병 후 사람을 구하는 진상 카드를 배포하다가 신고당해 연길시 하남파출소 경찰에 납치되어 연길시 구류소에 감금되었고, 가택 수색으로 현금 127원, 진상 현수막 15개 등을 강탈당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관련 서류(내용 불명)에 서명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경찰은 그녀를 감금하기 위해 강제로 연길시 병원으로 끌고 가서 건강검진을 받게 했는데 체온이 37.4도로

높자, 그녀의 옷 일부를 벗겨 체온을 낮추려고 3회 시도했어도 체온은 떨어지지 않아 병보석 형식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서류에 서명을 요구했지만 그녀가 응하지 않자, 경찰은 위슈잉을 도와주기 위해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했다고 말했다.

2020년 3월 27일 경찰은 가족에게 병원 검사비 570원을 지불하라고 한 후 위슈잉을 풀어줬다. 그녀는 구류처분으로 연길시 구류소에 1주일간 감금되었고, 2020년 5월에서 2021년 7월 기간 경찰은 2회 위슈잉 집을 찾아와 내용이 불분명한 서류에 또 서명하라고 위협했지만, 그녀는 역시 응하지 않았다.

■ 불법적인 징역 10개월

2021년 7월 20일 경찰은 가족에게 “2021년 7월 23일 연길시 법원에서 재판이 개정되니 위슈잉을 법정에서 출두시키라”고 연락했다.

위슈잉 사건 재판은 2021년 7월 23일 연변법원에서 개정되었는데, 재판장 리천제(李俊傑)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하여 위슈잉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10분 만에 끝났다. 재판이 끝나자 경찰은 곧바로 위슈잉을 연길시 구치소에 감금했다가, 2021년 11월 3일 길림 여자감옥으로 이송했다.

■ 감옥 박해

위슈잉이 길림 여자감옥에 감금된 뒤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전향’을 거부하자, 교도관은 그때부터 고문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다. 줄곧 작은 걸상에 앉게 한 후 일체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가족의 면회는 물론 전화통화도 금지시켰으며, 돈이나 물건도 받지 못하게 했으므로 화장지를 사용하지 못해 치욕적인 불편을 겪게했

다. 또 2개월 넘도록 세수도 옷을 갈아입는 것도 못하게 했고, 팬티에 바지만 입게 했다.

2021년 12월 14일 옥경의 지시를 받은 사기범 리홍위(李紅雨), 장링링(張玲玲)이 위슈잉에게 ‘전향’을 강요하며 고문박해를 가했다. 냉수를 몸에 끼얹어 솜옷이 젖게 한 뒤 타일 바닥에 물을 뿌려 놓고 맨발로 서게 한 후 창문을 열어 몸을 얼리는 고문을 가했다.

그들은 위슈잉을 향해 “추위에 떨라!”고 말하며 밤 9시가 넘도록 있다가 8~9명이 함께 위슈잉을 바닥에 쓰러뜨린 후 물을 넣은 신발을 신겨 3층에서 2층 감방으로 끌고 갔다. 2층 감방장 텐샤오윈(田曉雲)은 그녀를 작은 의자에 앉혀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플라스틱 의자에는 뾰족한 돌출부와 모서리가 둔부를 찔러 피부가 벗겨져 피가 흘렀으며 몹시 고통스러웠다. 상처를 입은 둔부는 매번 마찰로 상처에서 피가 흘렀는데 의자에 앉을 때마다 까지고 찢어져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고통도 더욱 컸다.

길림여자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위슈잉은 줄곧 작은 의자에 앉는 고문학대를 당했는데 출소할 때까지 매일 오전 5시 전부터 밤 10시까지 고문을 당했다.

▶ 중공 고문시연:
장기간 쪽결상 앉기

